

사우회 올해 예산 및 사업 확정

강회장, 행사 동호회지원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지시

정기총회 2월 25일, 정동 이빠네마

2011년 신묘년 새해, 강영구 회장 집행부가 출범한지 4년째로 임기 마지막 해를 맞았다.

강회장은 올해도 회원들을 위한 연례행사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수행하라고 사무처에 지시했다. 이에따라 사무처는 우선 2월 25일(금) 오전 11시에 정동 이빠네마에서 회원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예산과 각종 행사를 확정짓는다.

동호회 행사는 남시대회를 4월 중순에 시작하는 것을 비롯해서 등산대회, 골프대회, 바둑

대회등 상반기 행사가 차례로 열린다. 사우회 창립기념일이기도 한 5월18일(수)에는 회원 단합대회를 양주 문화동산에서 개최한다.

사무처는 지난해 송년의밤 행사에 54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것으로 마무리 올 단합대회는 200여명 이상의 회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따른 준비를 철저하게 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원로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반기 산업시찰은 6월에 실시할 예정으로 시찰대상과 장소를 찾아나설 예정이다.

사우회 창립 20주년기념 2010송년의밤 성황리치루

12월13일 마포 가든호텔, 강영구회장 김재철사장등 5백40명 참석



MBC사우회 창립 20주년 기념 2010 특별 송년의밤 행사가 12월 13일 월요일 저녁 6시에 서울 마포 가든호텔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사우회에서 강영

구회장등 회원 529명과 MBC에서 김재철사장등 10명, 흥국화재에서 유방훈상무등 4명이 참석해 모두 543명이 참석하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2면에 계속

신년사

사우회 회원 여러분과 함께
좋은 한해 만들어 가겠습니다



토끼는 영민하고 다산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토끼의 해 금년 한해도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고 소망하는 모든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 한 해는 그 어느때보다 방송경영이라는 측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광고시장은 크게 늘지 않았는데 종편채널이 4개나 더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인사의 이동이 요동칠 것이고 광고수주를 둘러싼 피말리는 경쟁이 불가피해 졌습니다. 그러나 위기에서 더 강했던 MBC를 우리는 믿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음으로 양으로 우리의 마음의 고향인 MBC가 위기에서 더 빛을 발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사우회는 MBC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성대한 송년의 밤 행사를 치르며 있습니다. 곳곳에서 인심 난다고 MBC가 잘 돼야 우리의 살림도 안정됩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사우회는 올해도, 지금까지 주관해 오던 각종 행사를 차질없이 실시하고 동호회 활동을 더 잘 지원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건강한 개인 건강한 사우회를 모토로 올 한해도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추억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BC 사우회 회장 강영구

신년사

방송 무한경쟁 시대에 다시 1등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철입니다.

신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언제나 그렇듯 지난 한 해가 다사다난했지만 다가온 새해에는 또 다른 희망을 갖게 하듯이 여러분들도 신묘년 새해 새로운 소망과 희망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종합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진입이 가시화되는 등 실로 방송의 무한경쟁 시대가 전개될 예정입니다.

저는 MBC구성원의 저력을 기반으로 이러한 위협요인을 기회로 만들어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MBC의 더 큰 발전과 전진을 위한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MBC는 2011년 '1등 탈환, 끈질긴 실천'이라는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사우회원 여러분들도 이러한 후배들의 노력에 격려와 성원을 많이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MBC 임직원 모두는 미래의 잠재적 사우회원입니다. 작년은 사우회 창립 2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였습니다.

2011년, 이제 새로운 10년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사우회가 진정으로 MBC 가족을 따뜻하게 어우르고 보듬어 줄 수 있는 더욱 발전하는 사우회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회사도 사우회의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사우회 선배님 여러분! 다시 한 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모두와 대내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 문화방송 대표이사 김재철

2011 MBC

나눔

사랑해요

MBC 나눔 홍보대사 이지선 + 서울농학교 김지연

<지선아 사랑해>의 저자 이지선 씨(34세)는 2000년 교통사고로 전신 55%에 3도 화상을 입는다. 기적처럼 다시 살아난 지선 씨는 사고 후의 삶을 '덤으로 사는 삶'이라며 소외받는 이들을 위해 살고 싶다고 말한다. 어린이들이 괴물이라고 피할 만큼 심한 화상을 입고도 지선 씨는 현재 UCLA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을 밟으며 당당한 인생을 살고 있다.

사우회칼럼

내 젊은 날의 이야기

아나운서
임 주 완

의식 중계에 이르기까지 30여 종목을 넘는다.

이 많은 국내외 중계 속에서 생가 나는 중계는 86년 서울 아시안 경기에서의 탁구 중계, 남미 만리장성을 허문 경기로 당시 5시간 20여 분의 이 중계는 금단시행 News Desk를 불발해하고 탁구 중계를 계속하여 끝내 금메달을 획득하는 그 영광된 장면을 온 국민이 시청해왔던 탁구의 승리로 중계의 패기였다.

이 탁구의 승리로 인해 다른 종목도 하면 된다는 촉매 역할을 했고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에 나는 역사적인 상암 월드컵 개장 첫 경기 프랑스 대 세네갈 경기와 부산 아시안 경기장에서의 한국 대 폴란드 경기, 인천 문학 구장에서의 한국 대 포르투갈 경기를 중계했는데 폴란드, 포르투갈을 이기고 대한민국 축구 사상 실로 48년 만에 16강에 진출한 패기를 이룩한 현장에 내가 있었음에 큰 긍지를 느낀다.

물론 우리 MBC는 이 때에도 세 방송국 중 시청률 1위를 차지하여 당시 초반 시청률 1위를 차지한 방송국에 주겠다고 남긴 광고 30%를 독차지하고 대박을 터뜨린 일은 다 아는 사실이다.

앞에서 열거했듯이 이처럼 많은 중계를 소화할 수 있었기에 나는 제직 시절 참으로 많은 해외 중계를 할 기회를 가졌는데 그 중에 84년 프레스 올림픽 쿠바 농구 대회, 89년 북경 여자 핸드볼 세계 대회는 당시 시 소규모이며 적성 국가여서 무척이나 신경 쓰이고 두려움을 안고 떠난 중계이며 한국 방송 사상 첫 적

양의 동서를 오가며 축구 마라톤 복싱등 30여 종목 중계 한번 아나운서는 영원한 아나운서 "나는 뛰고싶다"

견인차 역할을 하여 결국 중국에 이어 2위라는 금자탑을 세운 원동력이 되었던 경기였다.

또한 94년 미국 월드컵 대회 중계(볼리비아, 스페인, 독일)와 2002년 한일 월드컵 중계 때 신문선, 차범근과 호흡을 맞춘 중계였다고 생각한다.

중계 방송이 끝날 때마다 PD나 아나운서, 해설자가 가장 신경 쓰이고 걱정되는 것이 꺾임이나 무슨 리서치 기관에서의 시청률 조사인데 이 시청률에 각 방송사 사장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그만큼 회사 수입과 직결되는 것이요 방송사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일 것이다.

94년 미국 월드컵 때에도 우리 MBC는 타 방송국을 훨씬 능가하여 시청률 1위를 차지 하였는데 그 당시 일간 신문 매체에서 초대제 국영 방송을 물리친 그 원인과 이유를 상세히 분석하여 기사화한 적도 있다.

성 국가에서의 중계여서 특별히 뇌리에 남는다.

얼마 전 대학원 동창회 만년회를 갔는데 어느 중년의 썩썩한 분이 나에게 찾아와 공손히 인사를 하며 선생님 아나운서 임 누구시죠 제가 선생님의 팬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저 출판장에서도 선생님 팬입니다 이렇게 만나 뵈어서 영광입니다.

이 이제 나도 나이를 먹긴 먹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나는 아직 내 안에 젊음이 있고 패기와 열정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

내 목소리가 변성이 되어 도저히 일 할 수 없기 전에는 나는 나의 이 길을 계속 가려다. 왜냐하면 한번 아나운서는 영원한 아나운서이기 때문이다.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기어야 한다는 갈망 때문일까?

시 사람!

사우회 부회장 김 용 빈

"침뜸 치료 봉사하면서 제가더 행복했죠"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던 그들의 순수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지난 해 9월 말부터 석 달 간 여행봉사단 주관 '뚝사랑' 회원으로 베트남 침술 봉사를 다녀온 김용빈 MBC 사우회 부회장.

현지에서 만난 환자만 해도 천여 명이 넘고 주기적으로 온 환자도 500명은 족히 된다. 그러다 보니 잊지 못할 기억도 많다.

"호치민 신도시인 푸미홍에서 봉사를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경우도 많았어요. 2시간이 넘는 거리에서 버스를 대절해 동네 사람들이 단체로 온 적도 있고, 노인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치료를 받기도 했어요. 한 번은 토요일이라 쉬고 있는데 한 베트남 청년이 일을 하느라 어깨와 허리를 다쳐서 급하게 왔더라고요. 처음에는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는데 치료를 한 후에 금방 움직일 수 있게 됐죠."

울면서 고맙다고 하는데 저도 몽클레지더라고요. 이후에 부모님처럼 형과 형수까지 데리고 와서 치료를 받았는데 너무 고마워하니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봉사가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싶었죠. 3개월간의 봉사를 끝내고 돌아

"제가 뜬의 효과를 본 사람이니까 직접 배워서 다른 사람한테도 알리고 싶더라고요. 화요일과 목요일 이틀간 정기적으로 봉사를 하고 도서관에서 공부도 하는데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제대로 봉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부 필요하죠."

많은 일이 없는 한 그는 집 근처 도서관에서 하루를 보낸다. 뜬과 관련된 각종 서적을 탐독하기 위해서다. 베트남 봉사를 다녀온 것도 더 깊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생각을 해요. 깊이 알아야 제대로 치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건데 한 두 해 한다고 될 일은 아니잖

호치민시 신도시 푸미홍에서 3개월간 침뜸 봉사 소문듣고 버스 대절해 동네주민 단체로 찾아오기도

올 때는 공항까지 배웅 나온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 한국까지 따라 오겠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봉사를 통해 제가 더 얻은 게 많았던 셈이죠." 운동을 유난히 좋아해 골프와 등산을 꾸준히 하던 그는 2008년 여름, 좌골 신경통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치료를 위해 6개월간 신경외과, 정형외과, 한의원 등 안 다녀본 병원이 없었다. 그러나 병은 쉽사리 낫지 않았다. 그러다 우연히 뜬이 효과가 좋다는 걸 알게 됐고 거짓말처럼 나아갔다. 본격적으로 침뜸 공부를 하기 위해 학원을 다녔고 침뜸 요법사 시험에도 합격했다.

아요. 더 열심히 공부해야죠." 최근 베트남까지 다녀오면서 봉사에 대한 열망이 커졌다. "하루 할수록 더 하고 싶은 게 봉사더라고요. 베트남을 다녀오면서 느낀 건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언제든 달려가서 봉사를 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기회가 된다면 캠퍼가 한 대 끌고 다니면서 전국의 시골 노인들을 치료해 주는 것도 좋겠고. 아직은 불법이기 때문에 제약이 많은 게 이것이 풀려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박성희 기자 birdy23@naver.com

미주지회 회장에 이은혜씨

사우회,활성화위해 올해부터 적극 지원

집행부 공식으로 표류중이던 미주지회가 지난해 10월 이은혜씨를 회장으로 하는 집행부를 구성하고 새롭게 출발했다.

미주지회 회원들은 지난해 10월 LA의 한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회장에李恩惠씨(보도부), 부회장에金丁洙씨 그리고 총무에金美英씨를 선임했다.

이은혜 신임회장은 "54명의 회원 가운데 연락이 전혀 되지 않거나 최근의 모임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은 회원들을 정리 하고 적은 회원이라도 미주지회가 활성화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사우회 사무처도 미주지회가 빠른 시간안에 활성화 될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여의도 MBC 본사 3층에 퇴직사우 휴게실

2월 1일 개실 예정...TV 수상기 집기 등 갖춰

여의도 MBC 본사 (방송센터) 안에 퇴직사우 휴게실이 마련된다.

김재철 사장은 지난해 사우회 송년회 행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사우회 회원들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는데 그 시연책의 일환으로 본사 건물안에 퇴직사우 휴게실을 마련하도록

관계자에게 지시했다.

이에따라 본사 총무부는 5평정도인 3층 중정 옆 매점을 폐쇄하고 그 자리에 휴게실 공사를 시작했다.

휴게실에는 TV수상기와 필요한 집기등이 설치된다. 여의도 휴게실은 2월 1일부터 사용이 가능 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1면에서 계속

MBC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개최된 이날 송년의 밤 행사는 개그맨 서승만의 재치넘치는 사회로 여성 8인조 퓨전국악그룹 '미지'와 신세대 트로트

가수 '홍진영'의 축하공연이 펼쳐져 참석한 회원들

퓨전국악그룹 등 흥겨운 축하공연에 해외여행 티켓 상품권 등 푸짐한 선물잔치

을 열광 시켰다. 이날 행사에서 하이라이트는 행운권 추첨, 3백만원짜리 해외여

행 티켓은 편입평(보도) 표 찬일(편제) 회원이 당첨돼

올해 최고의 연말을 보내게 됐다.

또 2백만원짜리 국내여행

사우회 사무처 중무식 활기찬 새해 다짐

30일오후 30여명모여 막걸리로 한해 정리

사우회 사무처는 12월 30일(목) 오후에 사우회 사무실에서 중무식을 갖고 2010년 업무를 마감했다.

이 날 중무식에서 강영구 회장은 "지난해 업무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원로 회원들과 선배 회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사무처 임-직

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중무식에는 노서를 고문 등 평소 사무실을 자주 찾는 30여명의 회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 날은 막걸리 등으로 분위기를 돋우며 다사다 난했던 2010년을 아쉬워 하고 신묘년 새해에도 건 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날것을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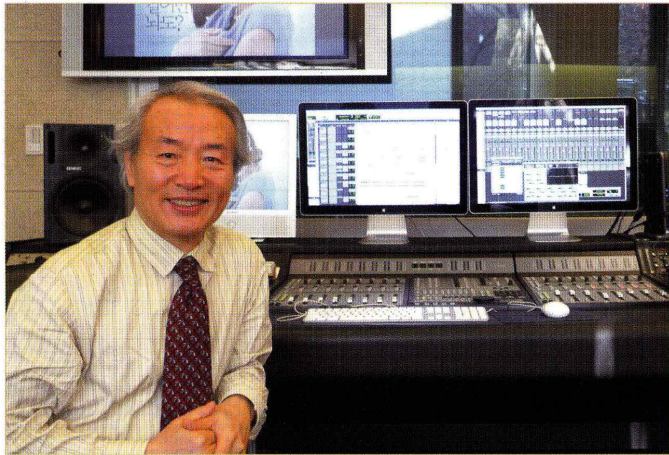
티켓은 김순환(ANN) 홍진표(관리) 김중수(편제) 김동진(보도) 회원등 4명에게 돌아갔다.

이밖에 10만원권 상품권 추첨에서는 김형국(기술) 회원등 40명이 행운을 차지했다.



"우연히 제작한 라디오 CM 덕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죠"

광고 제작 인생 40년 CM PARK 대표 박수부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던 게 었그제 같은데 벌써 40 여년이 됐네요." 지난 89년 회사를 설립한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나 광고제작사 CM PARK.

설립 초창기부터 각종 광고대상 수상작에 회사 이름을 올렸고 올해에는 대한민국 광고대상 라디오부문(알바천국-구급차, 콘서트편)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그 뒤에는 박수부 대표의 특별한 경영 철학이 있다.

"젊은 직원들이 열정을 갖고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런 생각으로 20년을 넘게 회사를 이끌어 왔으니 제 방향이 틀리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CM PARK는 Commercial Park의 합성어다. 자연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던 그가 최초로 마련한 사옥이 숲이 우거진 공간이었다. 숲의 이미지를 회사 이름에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그의 호도 수하(樹下)다.

그래서인지 현재의 사옥도 아늑한 서재처럼 꾸며진 독립된 공간들로 구성되어 있다. 공간 자체가 창의적인 셀

올해 대한민국 광고대상 라디오 부문 금상 수상 쾌거 사원들에게 최고의 공간 창조적인 사무공간 만들어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딱딱한 공간이 아닌 창조적인 사무 공간이 필요했죠.

물질적으로 업계 최고의 대우를 해주진 못하더라도 정신적으로 자신이 몸담은 공간이 최고라는 생각이 들도록 하고 싶었거든요.

이다.

부침이 심한 광고업계에서 CM PARK의 성장은 이례적이다. 제작 초기부터 국내에서 뿐 아니라 미국, 영국, 인도 등 해외 유수의 광고 페스티벌에서 수상했고 제일기획 등 국내 최고의 광고대행사와 오랜 기간 파트

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경쟁이 치열한 업계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한 압박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쟁을 하되 지나치게 의식은 하지 말자고 생각했죠. 클라이언트를 제가 경영하는 회사라고 여기고 직원들에게도 끊임없이 동기부여를 했어요.

그리고 일 외적인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고 있어요. 그게 클라이언트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원동력

전통 공예품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한 기업 PR 광고인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캠페인 시리즈도 그의 아이디어에서 나왔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하나씩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쓰던 물건 자체가 뛰어난 공예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보니 집안 전체가 잡동사니 박물관이 돼 있더라고요.

사실 진짜 박물관을 열어서 다음세

아이디어는 일 밖에서 또 하나 옛 것에서 얻는다

로터리클럽 봉사 20년 ... 전통 공예품 박물관도 열고파

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20년간 로터리클럽 회원으로 꾸준한 봉사 활동을 해왔고 올해에는 1년 임기의 국제로터리 3650지구 사무총장까지 맡았다.

최근에는 미국 로터리 본부 홍보팀의 의뢰로 로터리 공익광고("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편)를 제작하기도 했다. 결식아동 돕기 캠페인용 라디오 CM도 직접 만들어 1월부터 전파를 탈 예정이다. (93.9Mhz CBS 음악 FM '8대와 여는 아침, 김용신입니다' 08:59 방송)

"봉사하면서 직접적 도움까지 줄 수 있으니 더없이 기쁘죠.

조만간 소아마비 박멸을 위한 백신 공급 봉사 활동을 위해 뉴질랜드 떠날 예정인데 봉사를 통해 얻는 에너지 덕에 광고 일에도 열정을 쏟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디어를 얻는 또 하나의 비법은 옛 것에 대한 관심이다. 수 십 년 전부터 전국을 돌아다니며 꾸준히 수집한 구전 민요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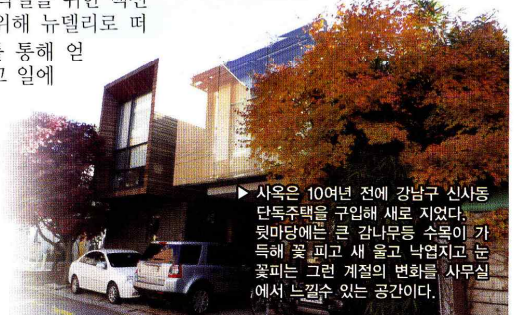
대에게 우리 것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게 작은 꿈입니다."

73년 MBC PD로 입사해 라디오 CM을 제작하면서 광고와 인연을 맺은 후 40년 가까이 광고인으로 살아온 그는 MBC 덕에 한 평생 광고인의 길을 걸을 수 있었다.

"MBC 출신이라는 생각은 늘 버림목이 돼 줍니다. MBC에 몸담은 시간이 길진 않지만 그 덕에 광고가 천직이라고 여기게 됐죠.

CM PARK가 꾸준히 인정받는 광고 제작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MBC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해요.

박성희 기자 birdy23@naver.com



▶ 사옥은 10여년 전에 강남구 신사동 단독주택을 구입해 새로 지었다. 뒷마당에는 큰 감나무들 수목이 가득해 꽃 피고 새 울고 낙엽지고는 꽃피는 그런 계절의 변화를 사무실에서 느낄수 있는 공간이다.

각부문 동호회 송년모임 & 신년회

MBC사우회 각부문 동호회도 연말 송년모임과 신년회를 갖고 지난 한해를 되돌아보는 한편 더 나은 새해를 만들어 갈 것을 다짐했다. 사우회는 이들 모임에 양주 2병씩을 지원하고 즐겁고 보람된 모임이 되기를 기원했다.

文美術(미술파트) :

11월19일(금) 3·1빌딩 하이마트뷔페에서 모였다. 25명 참석.

아나운서 OB회 :

11월30일 강남 오미가에서 만났다. 23명참석(남자16, 여자7). 차인태회장이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회원들을 기쁘게 했다.

靑竹會(시설부) :

12월2일(목) 3·1빌딩 하이마트 뷔페에서 모임을 가졌다. 29명참석.

技術同友會(기술부문) :

새 회장에 林正奉회원 / 12월9일(목) 마포강진수산에서 송년모임 겸 총회를 가졌다. 80명참석. 이 자리에 서는 林正奉회원을 새 회장으로, 趙晶九회원을 부회장으로 뽑아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仁寺洞클럽(R-PD) :

12월11일(토) 3·1빌딩 하이마트 뷔페에서 모였다.

文記會(보도부문) :

12월16일(목) 여의도 먹자빌딩의 중국집 신동양에서 모임을 가졌다. 40명참석. 문기회는 전통적으로 정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매달 만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송년모임만은 여의도에서 갖고 현역 시절을 추억하곤 한다. MBC社歌를 부른뒤 모임을 끝내는 것 또한 문기회의 오랜 전통인데 이날은 주변이 너무 시끄럽고 번잡해 부득이 사가를 생략하기도..

文友會(차량부) :

새 회장에 吳靑葉회원 / 12월18일(토) 여의도 신정에서 만났다. 38명참석. 새회장에 吳靑葉, 총무에 吳壽天회원을 선출하고 팀워크를 재정비했다.

文京會(광고부문) :

올 1월4일(화) 세종호텔 은하수홀에서 신년회를 갖고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자고 다짐했다. 39명참석. 공석중이던 감사 1명에 김지현(업무)씨를 선출했다.

바둑클럽 :

1월6일(목), 종로3가 부산횃집에서 11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인사회를 가졌다.

등산클럽 : 1월11일(화) 오전 10:00, 지하철 3호선 녹번역을 출발해 삼각산까지 오르는 신년산행을 가졌다. 참석 인원 20명.

|알림|

한문 공부방 3월 개설합니다.

사우회는 오는 3월부터 한문 공부방(가칭)을 개설합니다. 사우회 사무실에서 매주 **한번 2시간** 정도 한문기초부터 시작해서 **通鑑節要**를 텍스트로 함께 공부하는 모임입니다. 스터디그룹은 현재 고전번역원 4년차에 재학중인 치열한 만학도 이진세 회원(前 MBC 아카데미 사장)을 멘토로 공부합니다.

통감절요는 사마광의 자치통감의 大要를 뽑아 만든 중국 1362년 간의 편년체 역사서로 治道에 자료가 되고 왕조 흥망성쇠의 원인등을 분석한 흥미로운 고전입니다. 참! 이책은 조선시대 초학들의 한문 학습교재로 널리쓰였습니다.

누구나 연락주세요.

사우회 사무처(722-7416)

경조사항

결혼

박준순(ANN)딸 10/22 박준완(관리)차남 10/23 조정구(기술)딸 10/23
최정일(관리)장녀 10/30 조한준(전주)차남 10/31 이중구(관리)장녀 11/6
김보영(관리)아들 11/7 박순호(관리)장녀 11/7 박영일(편제)장남 11/19
고재원(관리)장녀 11/21 김경태(편제)아들 11/27 권혁준(편제)차녀 11/28
강철용(편제)장남 12/4 김기주(보도)아들 12/4 박승기(전주)딸 12/18
방준식(기술)딸 12/19 정명환(대구)장남 12/26 최화숙(ANN)장녀 12/27
추성준(보도)차남 01/16 고정석(관리)장녀 1/29

부음

정계춘(편제)부친상 10/14 황기찬(편제)부친상 10/17 김철옥(대구)부인상 10/21
이현보(부산)부인상 10/22 김병철(기술)모친상 11/7 洪鍾宣(편제)장모상 11/14
유철수(관리)모친상 12/10 이현우(ANN)장인상 12/14 이길범(관리)모친상 12/19
정영희(ANN)남편상 12/28 최중수(편제)장인상 1/04 한숙동(편제)장모상 1/5

- **곽노환(보도)회원** 11월17일 간암으로 별세. 향년77세. 10여년전부터 기억력이 떨어져 요양원에서 투병 생활을 해왔다. 보도국부국장과학설위원을지냈으며뉴스데스크 명ANC로도 활약했다. 1986년에 삼척 MBC사장을 역임했다.

- **신진식(부산)회원** 11월22일 뇌출혈 후유증으로 별세. 향년74세. 1962년 부산MBC기자로 입사. 주일특파원 보도부장 편성국장 이사를 지냈으며 1989년에 제9대 부산MBC 사장으로 선출됐다. 장례식은 11월25일 부산문화방송회사장으로 엄수됐다.

- **조재욱(관리)회원** 11월28일 심근경색으로 별세. 향년 58세. 1976년에 입사해 3년동안 차량부에서 근무했으며 1995년에는 경성종합개발을 설립해 운영하기도 했다.

- **서정남(편제)회원** 12월10일 간암으로 별세. 향년69세. 그동안 만성 간염으로 고생해 왔는데 지난 11월 부인의 성화로 뒤늦게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간암말기 판정을 받고 1개월만에 타계했다. 1980년에 입사해 14년간 근무했으며 드라마와 쇼등 세트를 디자인하는 미술 제작위원으로 근무했다.

경사

팔순 이재영(기술) 1/26 이재수(관리) 1/27 김경한(업무) 2/18
이효영(편제) 3/1 김세중(관리) 3/13

고희 홍렬(편제) 1/2 노성석(관리) 1/4 유철환(편제) 1/18
이승상(미주) 1/26 권오룡(편제) 1/27 이방근(관리) 1/28
김학문(편제) 2/12 임동훈(보도) 2/15 최영성(편제) 2/15
최홍림9기술) 2/16 홍사윤(업무) 2/25 박태용(보도) 3/1
김양배(편제) 3/9 박노우(기술) 3/20 임성전(춘천) 3/20
유삼열(부산) 3/24 이재욱(관리) 3/25 장영배(보도) 3/25

희갑 김흥기(보도) 1/3 오수천(관리) 1/9 이영삼(편제) 1/12
정인영(편제) 1/16 류월상(편제) 2/1 이상원(편제) 2/3
김태숙(대전) 2/4 장영효(관리) 2/5 이도형(편제) 3/2
송인외(관리) 3/3 김세일(관리) 3/23 박삼열(관리) 3/23
이현규(편제) 3/25

|알림|

연회비장기미납
경조비지급 중지

2006년 미납자부터 적용

연회비를 5년이상 장기 미납한 회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조비 지급이 중지됩니다.

올해 개인별 경조비 지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2006년도분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경조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밀린 연회비를 납부하실 경우 다음에 발생하는 경조비부터 지급합니다.

연회비를 5년 이상 납부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으시는 회원이 없으시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월 15일 현재 연회비를 5년 이상 미납한 회원은 119명 10년 이상 장기미납 회원도 4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MBC퇴사 1년지나면
사우회입회 못해

사우회 규정 개정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MBC를 그만 둔 직원들은 올해까지만 사우회 입회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입회에 관한 규정이 느슨해 회사를 떠난지 20년, 30년이 지난 다음에도 입회가 가능했지만 내년(2012년)부터는 입회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MBC를 떠나는 직원들은 퇴사후 1년내에 입회외사를 밝히거나 입회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우회에 입회할 수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친분이 있는 사원들에게 이러한 규정을 회가 닿는대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규입회

11/25 徐基煥(기술) 010-8915-2415 02-782-8368 영등포구 여의도동 28 광장A 10-403
12/01 李勝烈(편제) 010-2531-4170 02-525-4170 강남구 압구정동 513 한양A 53-206
12/06 梁熙成(업무) 011-9915-2383 02-576-8013 강남구 도곡1동895-8도곡한신 A3-102
12/08 李敦允(편제) 010-5347-6403 02-382-7637 은평구 구산동 경남아너스빌 101-1204
12/10 崔 天(기술) 010-4929-2260 02-3462-2260 강남구 도곡1동 895-8도곡한신A 3-805
12/13 尹永禮(업무) 010-9083-5380 02-456-5380 광진구 광장동 565 현대A 802-1602
12/13 鄭孝植(기술) 010-4013-3699 02-264-7066 양천구 목3동 549 금호베스트빌 105-409
12/15 鄭喆敏(기술) 010-3753-4067 070-7018-4789 고양시 일산서 구덕이동 태영A 104-1203
12/21 朴福萬(편제) 011-744-7673 02-872-6222 판악구 청림동 관악현대A 103-1503
12/30 張相福(관리) 010-9274-5929 031-773-0064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444-1

연회비 내신분들

※연회비 납부는 외환은행 서대문지점 071-13-14297-3 문화방송사우회

평생회비

유재식(관리) 10/12 이종래(편제) 10/20 장창현(보도) 10/21 장 용(기술) 10/25
이용우(보도) 11/8 임남규(관리) 11/18 서기환(기술) 11/25 양희성(업무) 12/6
주광순(관리) 12/6 임채현(보도) 12/7 이교윤(편제) 12/8 윤병진(보도) 12/10
최 천(기술) 12/10 김필환(관리) 12/13 정철민(기술) 12/15 윤영래(업무) 12/21
장상복(관리) 12/30 이예나(이양순, 관리) 12/24

연회비

10월 고영일(14~21) 김정명(10) 김춘규(10) 박근학(10~14) 박승기(전주11~12)
선남준(10)오병석(09~10)원정만(06~10) 유재식(09) 유혜자(09~11)
이종래(07~09) 이중구(10) 장영준(09~10) 전한호(10) 정계춘(11~14)
최근수(11) 최홍림(10) 하광언(10) 황학구(10)

11월 강인숙(10) 강철호(10) 고성광(04~18) 곽노환(04~09) 김삼량(07~10)
김영균(09) 김종국(07~09) 노홍식(10) 박수명(10) 박준하(07~08)
박해선(10) 서동식(11~13) 신진식(06~09) 유순옥(10) 이용우(06~09)
이훈상(09~10) 임남규(09) 임이랑(10) 장석호(10~11) 장효상(07)
정태용(10) 조병락(09~11) 조석영(10) 하영상(09~10)

12월 강창우(09) 고희철(09~10) 김규수(07~10)김기주(06~10) 김병덕(08~11)
김봉성(04~10)김세중(11) 김우중(07~11) 김중창(10) 김중현(10)
김태경(02~03) 김태숙(10~11) 김홍배(10) 김희을(10) 남의균(10) 문시용(11)
문정철(10~12) 박미숙(07~11) 박복만(10) 박승선(10) 박오순(12~13)
박종환(10) 서명규(11) 손도정(10) 송인외(10) 오인영(06~07) 윤병진(08~09)
윤종기(11) 이관영(09~10) 이규용(12) 이대교(11) 이명자(10) 이보근(10)
이상세(11)이상훈(관리-09) 이소진(10) 이승렬(10) 이예나(양순08~09)
이종선(10) 이한식(11) 인우삼(11) 이형식(10) 임봉주(12) 장우식(08~11)
장인순(10~11) 정병준(11) 정효식(10) 조재욱(03~10) 주광순(04~09)
최대홍(10) 최문주(11~12) 최승일(08) 최영복(11) 홍기준(09~10)
홍환식(09~10) 하영현(10) 하재물(08~10) 홍신숙(09)

전화/주소변경

|편제| 이범수 010-9471-7789
김익원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서해그랑블 501-1103 홍학표 010-3399-0635

김중복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신월리 393-113 |ANN| 최화숙 010-5345-9704

서상용 010-9034-1316 |관리| 고영석 010-2715-0432
이공희 용산구 이촌동 430 LG한강 자이A 103동 103호 관악구 은천동 635-481 베스트빌 301호

이명자 010-8735-6723 |고병조| 010-6613-5366
|보도| 김성규 양천구신정3동1277 신목동A 404-802

박우정 관악구 보라매동 729-22 롯데캐슬 3203호 010-5207-1138
신대근 010-3502-3000 김필환 010-7574-1078
홍윤호 강서구 가양동 1475 강변A 302-803 박승선 010-6315-1965, 02-2648-1148
이예나 010-6315-1965, 02-2648-1148 양천구 목3동 903 신시가지A 304-104

|기술| 배종두 010-6714-1954 장한진 010-8933-3044
홍환식 010-2335-0115 전병옥 010-3711-5406
|업무| 맹광호 010-7599-5320 황의철 010-6201-6202

박광성 은평구 진관동 20 은평 뉴타운 상림마을 826-1102 |부산| 하재물 010-4641-9779

이덕선 도봉구 쌍문3동 103-103 (B-1호) |대구| 박해선 010-4037-5476
이화옥 063-842-5364 익산시 춘포면 덕실리 37-20

ESSAY

“닭갈비, 막국수에 한잔 걸치니 해묵은 앙금도 씻기데”

- 문기회 춘천MBC 방문기

닭갈비와 막국수는 본고장에서 왁자지껄 떼 지어 먹어야 제 맛 나는 흥동 별미인가 보다. 지난 10월 말 버스가 경춘고속도로를 달려 소양담에 도착할 때 까지 차창에 스치는 풍광명미(風光明媚)도 시들했던지 잔잔하고 쓸쓸해 보던 선배들 노안에도 걸쭉한 동동우에 지글지글 닭갈비가 푸짐하니 절로 웃음이 배어 나온다. 원조 막국수 메밀감촉에 입이 즐겁고 너나 할 것 없이 마이크 잡고 카메라 돌리던 젊은 시절 옛날애기 보파리 풀어놓으니 참 오랜 동안 잃었던 웃음을 되찾아 장바닥처럼 시끌벅적해 진다.

일손 떨어지니 침묵이 어느새 벗이 되고 모바일 벨소리조차 울리지 않으니 암자에 갇힌 늙어가는 중처럼 종일묵상에 하루가 천년 같은 날도 늘어나기 마련인데..... 상가지구(喪家之狗) 행세 할 수도 없고..... 그런 터에 연방 박장대소하니 아득해진 옛



가을 정취가 무르익은 의암호가 내려다 보이는 춘천MBC 야외카페 조각상 앞에서
前보도국 논설위원 함 명 철

춘천MBC가 얼마 전 구내에 꾸민 카페에서 의암호 수변 익어가는 가을 정취도 눈에 담을 수 있었다.

곡학곡심(曲學曲心)하며 세상과 권력에 아부해 언론지존을 훼손하는 말년의 글쟁이들이 부지기수인데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는 포식난의(飽食暖衣)가 여의치 않으면서도 꽃꽂한 몸가짐으로 때로는 외롭기도, 부족하기도 한 것을 스스로 매질해 자신을 뛰어넘는 모습들이 부럽고 대견하다.

밤이 익을 무렵 서울에 도착한 일행은 석별잔치를 또 한판 벌였다. 오리고기 요리 집이다. 선배님들 왕성한 식성이 후배들 못지않다. 의당 담론은 건강관리다.

오랜 기간 지방과의 투병 끝에 건강을 회복한 李殷明 선배님에게 보내는 갈채도 진솔하다.

그리고 보니 姜英求 선배의 조속한 쾌유를 위해 또 박수응원 해야겠다. 입사 전에 공군의장대 소속으로 강한 체력으로 후배들 앞에서 물구나무를 서 몇

매달리는 일 때문에, 또는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로 두문불출하는 회원도 많으나 가끔씩은 얼굴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세월이 약이라는 옛말대로 모임에 나와 악수하고 서로 지근거리다보면 앙금도 씻기게 되고 위안도 되리라.

내 경우가 그렇다. 정년퇴직을 4년여 앞둔 어느 날 회사 측은 나에게 강제명퇴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학교공부도 채 마치지 못한 어린것들이 주렁주렁한 나는 앞이 캄캄했다.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 회사는 강제명퇴를 집행하고 그날부터 월급은 깎이고 보너스는 날아갔다. 다행히도 후배들이 회사 측의 무리수를 비판하고 나를 변호하면서 3개월 만에 출근정지는 해제됐다.

나는 그 당시 앙금이 얼마나 깊었던지 정년퇴직 이후에도 화가 풀리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추억 속의 아주 작은 아픔으로 남아있을 뿐이다. 세월이 약이다. 변화과정을 보면 웃음이 절로 나온다.

세월의 순치능력이 모질던 성격을 마모시켜 부드럽게 해주는 걸 느낀다. 낙엽귀근(落葉歸根)할 시간도 줄어든다고 있다. 그러니 마지막 욕심을 부리는 걸 말리는 주위사람들이 많다.

산자수려한 어느 시골에 터 잡고 문기회 벗들에게 잘 잘 먹거리 제공하며 하루 이틀 산 타고 물고기 잡으며 정봉명월에 쑥 빠지게 한다면 꽤나 그럴듯할 것이다. 남인들 이런 생각이 없겠는가. 치인설몽(痴人設夢)이 심해 또 수다가 길었다. 다음 상봉이 기다려진다.

觀春大吉이라더니 선배보고 北窓三友에 一友 더 얻고

그 시절 그 아픈 추억도 입안에 사탕처럼 녹아내려

날이 되 살아나 오랜만에 가슴이 터지고 머리가 개운하다.

多笑長壽 클럽도 있어서 억지로라도 웃다보면 늙게 되고 화를 자정하는 능력도 복원돼 노인중에서 나타나는 입술 처짐 현상도 치유된다고 하니 즐겁게 배불리 먹고 잃어가던 웃음을 복원한 것만 해도 그날 춘천 여행은 이문을 크게 남긴 장사다. 관춘대길(觀春大吉)이라더니 과연 그렇구나.

선배들을 초청한 춘천MBC 정홍보 사장의 안내로

십 미터까지 거꾸로 걸으며 건강을 과시하던 그가 그런 고통을 당하리라 누가 짐작이나 했겠는가. 일선언론에서 반평생을 비비대며 때로는 애증도 없지 않았던 선배들이 초록동색으로 달마다 얼굴을 맞대고 술잔을 기우리며 피차 여생을 걱정하고 일상을 떠나 여행길에 오르는 건 어느 조직에서도 그리 흔치않은 일이다.

그래서 북창삼우(北窓三友)에 文記會를 일우(一友)로 보태 北窓四友 했으면 어떨까 한다. 말년에

- 1) 風光明媚: 자연의 경치가 맑고 아름다움.
- 2) 觀春大吉: 산고수려한 춘천을 돌아보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는 옛말.
- 3) 飽食暖衣: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는 것.
- 4) 北窓三友: 당나라 시인 백거(白居易)의 북창삼우 시에서 유래한 말로 거문고, 술, 시를 아울러 이르는 말.
- 5) 落葉歸根: 잎이 떨어져 뿌리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모든 일은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말.
- 6) 痴人設夢: 어리석은 사람이 꿈 이야기를 한다는 뜻으로 허황된 이야기를 지껄임을 이르는 말.

회원인사동정



禹鍾範 (禹鍾範)

禹鍾範(禹鍾範)
대전 교통방송 본부장 취임
2010년 3월부터 대전교통방송 본부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임기는 2012년 2월까지인데 업무에 전념하기위해 아예 대전으로 이사했다.



河舜鳳 (河舜鳳)

河舜鳳(河舜鳳)
회고록·칼럼집 출판기념회 경남일보회장. 前국회의원. 11월9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회고록(나는 지금 동트는 새벽에서 있다)과 칼럼집(나의 작은 대한민국)출판기념회를 가졌다. 또한 올레초 1월2일에는 교보문고 강남점에서 출판기념 강연회와 사인회도 가졌다.



盧成大 (盧成大)

盧成大(盧成大)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임 前사장, 前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11월 25일 광주문화재단 초대대표이사에 선임됐다.

광주시는 “노前사장이 시민과 원할하게 소통할 수 있고 창의적 문화마인드와 리더십을 갖춰 초대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池碩源 (池碩源)

池碩源(池碩源)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 (주)HQQ 상임고문 취임
2010년 10월 15일 종합엔터테인먼트 기업인 (주)HQQ상임고문에 취임했다.
HQQ는 영화·드라마 제작 및 매니지먼트사업을 하는 회사로 종편채널 출범등 방송 다변화 시기에 맞춰 대형 콘텐츠 제작 시스템을 기획하고있다.



車仁泰 (車仁泰)

車仁泰(車仁泰)
희망콘서트 사회 맡아 병마극복하고 건강과시
前제주사장, 前평남지사, 前경기대교수. 12월 9일 신촌에 있는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2010 희망콘서트’ (은평천사원 나눔센터주최 - 센터관상(이창식)이 나눔센터를 극복하고 건강과 모습으로 사회를 맡아 녹슬지 않은 연륜을 과시하며 청중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선사했다.



張明浩 (張明浩)

張明浩(張明浩)
연세 언론인상 수상
前감사, 한국방송총회회부회장.
12월14일 ‘2011년 연세언론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2월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2011년 연세언론인회 새해인사회’에서 실시한다.



片一平 (片一平)

片一平(片一平)
문명대류 페이퍼로드로 국무총리상 수상
前전무, 12월20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2010 대한민국콘텐츠어워드에서 문명대류 페이퍼로드 ‘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朴興榮 (朴興榮)

朴興榮(朴興榮)
세종문화회관 제야콘서트 연출
세명대학교수. 2010년 12월31일 밤 10:30부터 2011년 0:10까지 100분간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된 (제야콘서트-러브 판타지)의 연출을 성공적으로 마

쳤다. 제야콘서트는 세종문화회관 개관 이래 3천석 유료티켓이 완전 매진되는 최고의 흥행성적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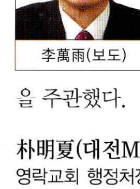
嚴基永 (嚴基永)

嚴基永(嚴基永)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 부위원장으로 선임
前사장, 12월22일, 서울올림픽파크호텔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위원총회에서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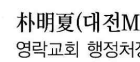
李萬雨 (李萬雨)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는 올해 7월6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더반에서 열리는 IOC 총회에서 결정된다.



李萬雨 (李萬雨)

李萬雨(李萬雨)
신년 오찬 모임 주관
고문. 1월4일 (화) 한정식집 多井에서 동호회회장 등 30여명의 사후회 회원을 초청해 신년인사를 겸한 오찬 모임을 주관했다.



朴明夏 (朴明夏)

朴明夏(朴明夏)
영락교회 행정처장취임
영락교회 장로로 1월 1일부로 교회살림을 도맡는 행정처장으로 취임했다.

강릉 MBC

2011

강릉MBC 연중캠페인

당신의 열정,
강원도의 힘!

